대구구도회 창립 20주년

철야정진·교리공부 '철저'

기초과정 수료 5천명…30여명 출가
'자비모임' 불우이웃 정기방문 위로

아직도 스산하기만한 3월 넷째 토요일밤의 해인사 지족암. 법당에는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좌선으로 밤을 지새는 불자들이 있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 지족암을 찾아 철야정진법회를 갖는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 이하 구도회) 회원들.

구도회는 지난 76년 첫 기초과정강좌를 가진후 오는 27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통 깊은 재가신행단체다. 유마거사와 승만부인으로 대표되는 재가주의를 표방하는 구도회원들의 가장 큰 행사는 년2회 개최하는 기초과정강좌. 큰스님과 석학들에 의한 1주일간의 강좌가 끝나면 사찰수련회를 갖는다. 이 시한부 출가는 권회장의 말을 빌면 '머리속에 든 지식을 심장속으로 넣는 작업'이 된다.

40회를 맞는 기초과정강좌 수료생만도 5천명에 달한다. 그동안 구도회를 다니다 출가한 스님은 약 30여명, 매년 한명이상 출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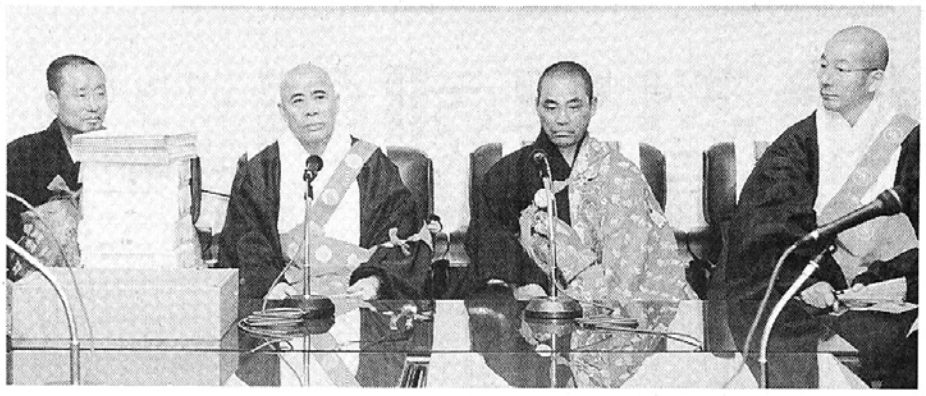
구도회의 큰 특징으로는 자율적 운영과 강도 높은 정진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요요가법회, 수요경전법회, 금요정기법회, 토요좌선법회, 일요어린이불교학교, 야외법회 등 다양한 법회를 개설해 놓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룹스터디식으로 운영되는 수요경전법회는 구도회의 모체가 된 모임. 지난 73년 김현준씨(효림출판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대학생으로 결성된 영어경전읽기 모임이 구도회로 발전했다. 법당에는 불서 3천여권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서가가 마련되어 있어 미니도서관 역할을 한다.

한편 화성양로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비모임'은 매월 불우이웃단체를 방문한다. 월간 구도회보는 철저한 재정공개, 선지식의 법문, 교리소개 등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자주 읽어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회원들의 이구동성.

요즈음 구도회원들은 미래구상에 한창이다. 인터넷 가입을 모색중이며 시민을 상대로 한 불교서적 대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시내 중심가로 구도회관을 이전할 서원도 세워 놓았다. 20세 성인이 되는 대구구도회는 바야흐로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한·일 천태종은 지난 15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양측 대표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천태종 동반자관계 '첫발'

15일 구인사서 대표간담회

학술·문화·인적교류 '물꼬'

남북화해·세계평화등 모색…韓中日 유대방안 논의

천태종은 지난 15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스기다니 기쥰스님과 총본산 연력사 집행(주지) 고바야시 류조스님등 양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천태종 간담회를 열고 양국 불교발전과 천태종의 상호협력을 모색하여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천태종조 지자대사의 열반 140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한·중·일 3국의 인적 학술적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본에서 45일간 개최되는 천태지자대사 추모행사에 삼국합동 법요식을 거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행사기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비(碑)'도 건립할 예정이어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일 천태종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구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일본 천태종의 르완다,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각국에 초등학교 지어주기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와함께 난민구호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각국의 각 종교지도자들을 초청 '세계 서미터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평화를 호소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79년부터 친선교류를 시작해온 양국의 천태종은 이번이 첫 종단간 공식교류이다. 일본 천태종은 오는 10월행사에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공식 초청했으며 98년 서울 관문사 낙성식에 일본 천태종 좌주(종정) 스님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6일에는 부산 삼광사를 방문하고 오후 9시 만찬식을 가졌다. 만찬식에서 한·일 천태종 양측은 "이번 공식 친선교류가 한·일우호를 통한 아시아평화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천태종은 법형제로서 우호가 증진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2부작 '고려대장경' 제작

불교 TV

세계 문화유산 당위성 화면설명
경판제작과정·보존신비등 다뤄

"문화유산은 살아있다!" 불교TV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의 신비를 조명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석굴암과 고려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치 인정부분의 당위성을 밝혀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내년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불교TV가 자존심과 사명감을 내걸고 최고의 역작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불교TV는 그 첫 출발을 오는 초파일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대장경(가제 PD최세영)'을 통해 펼쳐보일 계획으로 이미 3월말 1차 답사를 마치고 지난 17일 해인사 장경각 촬영 등 본격 제작에 돌입했다.

'고려대장경'은 지난 3월 개최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 학술회의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인사 장경각 연구소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려대장경의 신비를 풀어나가게 된다.

먼저 제1부 '대결집(가제)'에서는 나를 버린 채 오직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원력으로 탄생된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배경과 제작과정, 조성의 성공적인 요인을 짚어보게 된다. 이어 2부 '고려대장경은 살아있다'에서는 750년 동안 온전히 보존돼 온 고려대장경 보존의 신비를 검증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밝혀나갈 계획이다.

최세영 PD는 "고려대장경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극한 불심이 깃든 신앙의 대상으로서 고려대장경 복원의 참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 제작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초파일 방송이후에도 계속적인 조사와 검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내년에 방송될 예정인 석굴암과 함께 우리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진각종 새 교육원장 성초대정사 선출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17일 총인원에서 재적의원 37명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304회 정기종의회를 개최하고 유지재단 세입 1백20억중 1백17억원으로 결산됐으며 신임교육원장에 성초대정사(서울 남부심인당)를 선출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90억원의 95년도 통리원 교육원 각부서 결산안을 통과했다.

방송가 소식

'만암대종사 다비식' 본선진출

서울 다큐영상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혜화동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에 불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한편이 본선에 진출해 눈길을 모았다. 다름 아닌 김선호씨(씨엔필 제작부 팀장)의 '만암대종사의 다비식-한국의 불가사의'가 그것.

이 작품은 한국의 불가사의 중 제1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고종과 조계종 종정을 지낸 만암스님의 백양사 다비식의 특수한 절차와 사리가 출토되는 신비한 현상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만암스님의 다비식 진행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았던 수산스님의 증언도 담고 있다.

김선호씨는 "과학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우리문화의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것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에는 해외 초청작품의 하나로 95 야마가타 영화제 특별상 수상작인 아난드 팻워드한(Anand Patwardhan)감독의 'Father, Son Holy war'도 소개됐다. 이 작품은 인도의 종교전쟁을 영상으로 다뤘다.

"노인복지위한 노비구니의 원력"

법성스님 '김병조쇼' 출연

83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얼마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성라원을 개원한 원로 비구니 법성스님이 지난 23일 불교TV '김병조의 이야기쇼'에 출연<사진>했다.

성라원 설계에서부터 개원까지 오로지 불심하나로 불사를 이뤄냈다는 스님의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수행과정의 일화가 잔잔한 감동으로 안방을 훈훈하게 했다.

불교TV이사회 업무별 이사선임 결의

불교TV는 지난 15일 불교TV 9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담당별 이사제 도입과 이의 추진을 위한 상임이사 선임을 결의, 대표이사 태응스님에게 선임을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제2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선임된 태고총 총무원장 혜초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12명 이사와 기존 이사들간의 상견례도 함께 했다.

일본 부처님오신날

양력 4월8일 사찰단위 봉축행사 성대

법회·석존상 가장행렬·공연등 다채

부처님 오신날을 양력으로 기념하는 일본의 전국 각 사찰은 지난 8일 다양한 봉축법회와 행사를 봉행했다. '하나마쯔리' '관부쯔에'라는 이름으로 각불교교단의 대본산 총본산 지역불교회 각사찰단위로 부처님 탄신일 경축행사를 개최, 법회를 봉행했으며 동시에 가무와 각종 공연, 가장행렬들도 활발히 진행했다.

동경의 시따마찌 불교회에서는 그지역 23개소의 사찰과 연합하여 하나마쯔리 경축행사를 개최했으며, 교또지역의 불교연합회, 요코하마시의 효도교단, 쯔끼지본원사에서도 경내의 꽃이 만발한 가운데 탄신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본원사 하시라마쯔스님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것은 자기자신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자체에 존귀함이 있는 것"이라며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각 지역의 거리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연주, 하얀 코끼리모형에 석존상을 실은 가장행렬, 탄생불에 감차를 뿌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는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감차잎이나 꽃들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금년 봉축행사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법회가 봉행,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돼 봉축의 국제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검사와 달(月)

〈달을 듣는 강물〉이란 매우 詩적인 제목의 책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나오자마자 불교서점 순위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일반 대형서점 순위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상무대 이전비리, 수서사건 등을 담당한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해온 검사란 점이 주목을 받고 책에 대한 관심으로 증폭되는 것 같다. 자료가 거의 없어서인지 수월스님이 전설속의 인물처럼 그려져있고 내용이 반복되는 점이 다소 거슬리기는 하다.

그러나 평생동안 일을 하여 중생을 부양하고 자신의 삶을 찰나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면서도 그 삶 그대로를 모두 남에게 주어버린 한 스님의 자비행이 삼독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둥이며 벼락'처럼 다가온다. 책을 읽고 난 후 느끼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수월스님과 같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을 마음속의 달로 삼아 행적을 좇는 그 열정에 부러움이 느껴진다.

현대인에겐 영웅이 없다고 한다. 기껏 좋아하는 인물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같은 인기스타이고 그것도 그들의 허상을 보고 열광할 뿐이다.

일생을 바쳐도 좋을 만큼 좋아하고 존경할 인물을 가슴속에 담는 일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손해보는 짓이고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될런 지도 모르겠다.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좇고 싶은 것은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람쥐 쳇바퀴같은 매일 매일을 사는 우리 일반사람들이 자기자신이나 타인에게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가 이런 것일 게다. "뭐 재미있는 일 좀 없나? 따분해 죽겠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직업때문이 아니라 마음 속에 달을 품고 그 삶의 자취를 찾는데 십여년의 세월을 신명나게 바치고 그에 대한 글을 써 널리 알린 김검사의 뜨거운 열정이 부러운 것이다.

우리 독자에게는 김진태 검사나 그가 밝혀낸 달(수월스님)의 행적 모두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봉축 현수막 제작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 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봉축 리본
수동식 꽃리본 100개-20,000원
기계식 꽃리본 100개-35,000원
※1,0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색상(꽃분홍, 분홍, 노랑…)

봉축 어깨띠
고급공단, 3색칼라 1매…2,500원
※1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색상(노랑색, 핑크색)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원효사
■크기 및 보급가 / 90cm×5m · 35,000원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도선사
■크기 및 보급가 / 90cm×6m · 40,000원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조계사
■크기 및 보급가 / 90cm×8m · 50,000원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738-8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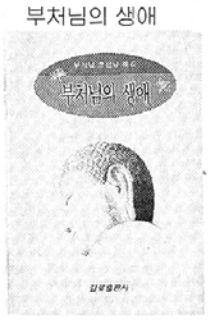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윤거사의 등공양

부처님의 생애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200원
크기 / 신국판 × 64페이지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